

# 서울 폐교, AI·특수교육·마음치유학교 등으로 '탈바꿈'

### 서울시교육청 이전적지·폐교활용 5개년 계획 발표 올해부터 2030년까지 2732억 투입 공교육 플랫폼·지역 복합공간 조성

서울의 폐교와 학교 이전적지가 미래 교육 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공간을 AI교육, 특수교육, 심리정서 지원, 유아교육을 담은 공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학교 이전적지와 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이전적지·폐교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폐교를 단순 유휴시설이 아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교육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중장기 교육 공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계속 발생하



고 있다. 그동안 폐교 활용은 개별 부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반복됐다.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에서 폐교 활용의 출발점을 '이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서 '이 공간이 서울교육의 다음 10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단독으로 시설 활용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

라, 교육적 활용 방향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협력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틀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공교육 거점형 공간 구축 ▲미래 교육·혁신 플랫폼 실현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 구축 ▲운영·관리 체계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성장·회복·도약·순환의 4대 정책 축을 기반으로 권역별 핵심 교육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 시설 로드맵도 제시했다. 2026년 강서구 공진중에는 '에코스쿨(생태환경교

육파크)'을 개관하고, 2027년에는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8년에는 종로구 구청사 1~2층에 'AI 교육센터'를 만들고, 2029년에는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2030년에는 강서구 염강초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전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5개 권역별 확장 전략도 담겼다. 교육청은 앞으로 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 등 5개 권역에서 학교 이전적지나 폐교, 유휴공간이 발생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공간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서북권에는 학생·주민이 함께 쓰는 체육·문화 거점과 미래교육 체험공간, 동남권에는 심리정서 지원 거점과 공교육 회복 모델, 서남권에는 세대 연계형 학습공간 등을 구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폐교 발생부터 활용

결정, 개관까지 사업 추진 절차를 표준화하고, 권역별 활용 우선순위와 폐교 전환기 관리 방안, 대내외 협력 및 조정 방안, 지역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담았다. 폐교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단계별 협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2732억원으로, 2026년 교육청 본예산의 약 2.5% 수준이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 71%, 국비 등 외부 재원 29%로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폐교를 단순히 활용하는 계획을 넘어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서울 곳곳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고양, 신중년 재취업·자기계발 돕는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 180명 모집

고양시는 '2026년 고양시 신중년캠퍼스' 상반기 교육과정 학습자 180명을 오는 3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중년캠퍼스는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과 협력해 재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중장년층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상반기 교육과정은 6개 특화과정과 1개 공통과정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 7일부터 8월까지 운영된다. 특화과정은 대학별 전문성을 반영해 ▲농협대학교 도시농업터널 과정 ▲동국대학교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중부대학교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 및 자기탐색 인문학 교실 ▲한국항공대학교 탄소

중립 코디네이터 양성과정과 SW·AI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등으로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30명씩 총 180명이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6개 특화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또한 동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공통과정 '약학 전문가가 제안하는 올바른 약 복용법'은 모든 참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포함됐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내 신중년 캠퍼스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월 7일 농협대학교 도시농업터널 과정을 시작으로 각 대학별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모집을 통해 총 14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숫폼에 빠진 고교생, 긴 글 집중력 떨어졌다

### 10명 중 3명 "10분 독해도 버겁다" 58% "목적 없이 앱부터 연다" 78% "예정보다 오래 보게 된다"

고등학교 10명 중 3명은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쇼츠와 릴스 같은 숫폼 콘텐츠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장문 독해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학사는 고등학교 3525명을 대상으로 숫폼 시청 습관과 학습 집중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길게 읽어야 하는 글을 10

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많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22.2%, '매우 그렇다'는 8.4%로, 전체의 30.6%가 긴 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는 26%, '전혀 아니다'는 15%로, 부정 응답은 41%였다. 진학사는 수능 지문이나 교과서처럼 긴 텍스트를 읽고 분석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경향이 학습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숫폼 이용은 이미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9%는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숫폼 앱을 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그렇다' 35.8%, '매우 그렇다' 22.1%

였다.

반대로 '아니다'는 12.5%, '전혀 아니다'는 4.6%로, 비습관적 이용 응답은 17.1%에 그쳤다. 상당수 학생이 별다른 목적 없이 숫폼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청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원할 때 멈출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에 그쳤다. 반면 78.4%는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시청하게 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가능하지만 가끔 길어진다 51.6% ▲멈추고 싶어도 자주 길어진다 20.1% ▲통제가 어렵다 6.8%로 조사됐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8 | 해질 / 18:43

3월 19일 (목)  
음력 : 2월 1일

수도권 날씨  
1 ~ 1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4/11, 동두천 -2/12, 가평 -3/12, 파주 -3/11, 서울 1/11, 양평 -2/13, 용인 0/10, 평택 -2/12, 인천 1/8, 수원 0/10, 백령도 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경기도, 가을 DMZ OPEN 페스티벌 연다

### 9월 전시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개최 국제음악제·포럼·걷기·마라톤 운영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 초까지 DMZ 일원에서 '2026년 DMZ OPE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통일부와의 적극 협업으로 국내·외 위상을 높이고, 약 2개월간 집중 개최 방식으로 운영해 축제의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 DMZ 일원에서 열리는 'DMZ OPEN 페스티벌'은 선을 열어 삶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DMZ의 선(Lin e)을 열어 일상과 세계를 잇는 평화의 흐름을 만들고자 기획된 종합 축제이다.

9월에는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DMZ OPEN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DMZ OPEN 국제음악제, DMZ OPEN 에코피스포럼, DMZ OPEN 평화걷기 등이 진행되며, 11월초 DMZ OPEN 평화마라톤을 마지막으로 페스티벌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DMZ OPEN 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성악가와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음악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통일부와 공동으로 열려 평화담론 확산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2025년 DMZ OPEN 평화마라톤 출발 현장 모습. /경기도

다양한 주제가 참여하는 열린 논의의 장으로, DMZ가 추진하는 '평화 공정'을 넘어 공동번영을 논하는 핵심 창구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메트로 한줄뉴스



▲하메네이·라리자니·국방장관·사령관... 軍 지휘계통 전원 피살  
▲美 "호르무즈 인근 이란 미사일기지를 방커버 스테로 폭격" /사진 뉴시스

▲트럼프 방중 연기... "미중관계 악재보단 기회" 분석  
▲美 침공 왜 했나... 영국도 "이란, 합의 가능한 제안했었다"

▲이란 국회의장 "호르무즈 해협 질서美 공격 전과 같을 수 없어"  
▲"이란, 위안화 거래 조건 8개국과 호르무즈 통과 협의"